

현란한 발... 신들린 '손'

손흥민, 獨분데스리가 파더보른전 15·16호 골... 팀 3-0 승

한 시즌 최다·세 시즌 연속 두자리 득점... 차범근 기록 -3

독일 프로축구 분데스리가에서 활약하는 '손 세이셔널' 손흥민(23·레버쿠젠)이 한 시즌 개인 최다골 기록을 16골로 늘렸다.

손흥민은 9일(한국시간) 독일 파더보른의 벤텔러 아레나에서 열린 파더보른과의 2014-2015 분데스리가 24라운드 원정경기에서 팀이 1-0으로 앞선 후반 39분 추가골을 터뜨렸다. 이어 후반 추가시간에 쐐기골도 더해 팀의 3-0 완승을 주도했다.

이로써 손흥민은 올 시즌 정규리그 9~10호 골이자 각종 대회를 통틀어서는 시즌 15~16호 골을 기록했다.

지난달 14일 볼프스부르크와의 21라운드에서 헤트릭을 폭발하며 정규리그 6~8호골이자 시즌을 통틀어 12~14호골을 기록했던 손흥민은 세 경기 만에 득점포를 가동하며 자신의 한 시즌 최다골 기록을 계속 새로 써 나갔다.

그는 올 시즌 분데스리가에서 10골,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 본선에서 3골, 챔피언스리그 플레이오프에서 2골, 독일축구협회(DFB) 포칼에서 1골을 넣었다.

특히 이날 2골로 손흥민은 분데스리가 정규리그에서 세 시즌 연속 두자리 득점을 돌파했고, 통산 40번째 골도 달성했다.

2010-2011시즌 함부르크 유니폼을 입고 분데스리가에 데뷔한 손흥민은 그 해 3골을 기록했고, 2011-2012시즌에는 5골을 뽑아냈다. 이후 2012-2013시즌(12골), 2013-2014시즌(10골)에 이어 올 시즌 현재 10골까지 정규리그에서 세 시즌 연속 10골 이상을 기록 중이다.

손흥민의 활약을 앞세운 레버쿠젠은 파더보른을 3-0으로 따돌리고 2연승을 달리며 분데스리가 4위(승점 39)를 지켰다. 파더보른은 승강 플레이오프를 벌여야 하는 16위(승점 23)에 머물렀다.

한 시즌 개인 최다골을 기록한 손흥민은 독일 프로축구 분데스리가에서 선정한 경기 최우수 선수에 이름을 올렸다.

분데스리가 공식 홈페이지는 이날 독일 파더보른의 벤텔러 아레나에서 열린 파더보른-레버쿠젠의 2014-2015시즌 24라운드 끝난 뒤 손흥민을 '이 경기의 선수'로 뽑았다.

분데스리가 홈페이지는 "손흥민이 이미 지난 시즌 정규리그 총 득점인 10골을 돌파했고, 올 시즌 두 골 이상을 넣은 경기가 세 차례 있었다"면서 득점력을 부각했다. 또 손흥민이 "이 경기에서 레버쿠젠의 슈팅 11개 중 7개에 관여했고, 팀 내에서 슈팅으로 연결된 패스를 가장 많이 기록했다"고도 소개했다.

그는 분데스리가 홈페이지에서 투표로 뽑는 '24라운드의 선수' 후보에도 올랐다.

함께 후보가 된 선수는 토마스 뮐러(바이에른 뮌헨), 프랑코 디 산토(브레멘), 막스 마이어(살게), 안토니 우자(뮐렌), 하이크 베스터만(함부르크)이다.

독일 대중지 빌트는 인터넷판에서 소개한 선수 평점에서 손흥민에게 양 팀 선수를 통틀어 가장 좋은 2점을 부여했다. 빌트의 평점에서는 1이 최고 점수로, 숫자가 낮을수록 좋다.

유로스포츠는 경기 소식을 전하면서 손흥민을 '맨 오브 더 매치'로 꼽아 활약을 인정했다.



손흥민이 9일(한국시간) 독일 파더보른의 벤텔러 아레나에서 열린 2014~2015 분데스리가 25라운드 SC 파더보른과의 경기에서 골을 넣은 뒤 세리머니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日 오카자키 넘어 '뽀 선수 득점 1위'

'손날두' 손흥민이 일본 출신의 '백전노장' 오카자키 신지(29·마인츠)와의 독일 분데스리가 한-일 푼잡이 자존심 대결에서 한 걸음 앞서 나갔다.

손흥민은 9일 독일 파더보른의 벤텔러 아레나에서 열린 파더보른과의 2014-2015 분데스리가 24라운드 원정경기에서 팀이 1-0으로 앞선 후반 39분 추가골과 후반 추가시간 쐐기골을 잇달아 터뜨렸다.

정규리그 9·10호골을 맞본 손흥민은 피에르

에메릭 오바메양(도르트문트)과 나란히 분데스리가 정규리그 득점 공동 7위에 올랐다.

특히 이날 2골을 몰아친 손흥민은 '태극전사' 구자철·박주호와 마인츠에서 한술밥을 먹는 일본의 공격수 오카자키 신지(9골)를 뛰어넘어 이번 시즌 독일 분데스리가에서 뛰는 아시아 선수 가운데 정규리그 득점 1위로 나섰다.

손흥민은 23라운드까지 오카자키와 나란히 8골을 기록하고 있었지만 특유의 '몰아치기 본능'을 가동하며 단숨에 뛰어넘었다. /연합뉴스

장애인 생활체육 활성화 1억2천만원 지원

전남도장애인체육회, 특수학교·복지관 등 76곳 선정

전남도장애인체육회가 전남지역 특수학교·장애인복지관 등 76곳에 1억2000만원을 지원한다.

전남도장애인체육회는 최근 전남체육회관 회의실에서 생활체육위원회를 열어 '2015년 상반기 장애인생활체육지원 공모 사업'을 심의한 결과, 총 67개소에 1억2000만원을 지원하기로 확정했다.

전남지역 특수학교·장애인복지관·장애인단체 등을 대상으로 공모한 결과 총 92곳이 신청

했으며, 이 중 장애인청소년교실 15곳, 생활체육교실 및 전통종목 25곳, 동호회(클럽) 19곳, 대회형 6곳 등 총 67곳을 선정했다.

전남도장애인체육회는 지난해 장애인생활체육 시도평가에서 88.8점을 얻어 전국 2위를 차지했다.

고병수 전남도장애인체육회 사무처장은 "앞으로 더 많은 단체가 선정될 수 있도록 예산 확보 등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곡성에 '국민체력 100 체력인증센터' 개소

곡성군에 '국민체력 100 체력인증센터'가 새로 생겼다.

국민체육진흥공단은 9일 곡성군과 서울 금천구, 경기 부천시, 경북 울진군, 제주 등 5개 지역에 100세 시대 건강관리 프로젝트 사업인 '국민체력 100 체력인증센터'를 새로 개소했다.

'국민체력 100'은 일반 국민에게 과학적인 방법으로 체력수준을 측정해 개인별 맞춤형 운동을 처방하고 체계적 건강관리까지 무료로 지원

하는 사업이다. 만 13세 이상 누구나 체력수준에 따라 금상, 은상, 동상 등의 체력인증을 받을 수 있다.

'국민체력 100' 사업은 홈페이지(http://nfa.kspo.or.kr)를 통한 인터넷 예약이나 전화 또는 전국 26개 체력인증센터에 직접 방문해 참가 신청을 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를 참조하거나 국민체력100 체력인증센터(☎02-410-1014)로 문의하면 된다. /연합뉴스

연패 탈출 '호랑이 군단' 연승 Go! Go!

시범경기, 주중 삼성·넥센

주말 LG 불러 첫 홈경기

연패에서 탈출한 '호랑이 군단'이 발톱을 세우기 시작한다.

KIA 타이거즈가 시범경기를 통해 올 시즌 운곽을 그려가고 있다. 지난 주말 마산을 찾아 NC 다이노스를 상대했던 KIA는 이번 주 포항에서 삼성(10·11일)을 만난 뒤 목동으로 건너간 넥센(12·13일)과 대결을 갖는다. 주말에는 LG를 안방으로 불러들여 첫 홈경기 일정을 치른다.

스프링캠프 연습경기에서부터 이어진 연패 행진을 4-0 영봉패로 끊으면서 기분 좋게 다음 일전을 준비하고 있다.

시간이 지나면서 올 시즌 운곽이 서서히 그려지게 된다. LG전을 기점으로 KIA의 정예 멤버들이 속속 그라운드에 모습을 드러낼 전망이다.

KIA는 시합조와 훈련조로 나눠 시범경기를 치르며 육성을 가리고 있다. 스프링 캠프에서 1차 검증을 했던 만큼 큰 틀은 갖춰져 있다.

'급할수록 돌아간다'는 전략아래 김기태 감독이 눈밖에 두었던 자위들도 위명업을 갖고 여필에 들어간다.

마운드의 중요한 키를 쥐게 된 윤석민이 9일 팀에 합류하면서 전력 점검을 받게 됐다. 스프



지난 8일 마산에서 열린 NC와 시범경기에서 승리로 경기를 마친 선수들이 하이파이브를 하고 있다.

링 캠프에서 마운드에 오르지 않았던 좌완 에이스 양현종도 삼성을 상대로 시즌 첫 피칭을 하게 된다.

광 재할캠프조에서 가장 페이스가 좋았던 김태영이 대만을 거쳐 시즌 첫 출격을 준비하고 있고, 2군 캠프에서 시즌을 준비했던 박준표도 시합조로 자리를 이동해 몸을 푼다.

이외에도 한승혁도 9일 동국대와 연습경기

서 2이닝을 무실점을 소화했고, 광정철도 천천히 봄이 오기를 기다리며 주말 합류를 준비하고 있다.

야수진의 자리 교체도 있다. 외야 중야를 노리는 김원섭과 한국 2년차 브렛 필을 비롯한 차일목·백용환(이상 포수), 박기남·윤완주(이상 내야수)가 시합조로 포함해 합류해 자리 경쟁에 나선다. /김여욱기자 wool@kwangju.co.kr